

# 特輯

## 전환점에서 한국의 부화업

- 현재 우리의 부화업은 전환점에 서있는 감이 있다. 부화장간의 대소의 격차 심화, 병아리 가격의 적정선문제, 종계도입중단에 따른 문제, 경영자의 세대 교체등으로 부화업계는 많은 변모를 해가고 있다. 과연 우리 부화업계가 처한 위치는 어디인가?

#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부화업체의 여건조성은 양계업이 사는길



기사작성 : 정 수 환

도움주신분 : (가나다순)

박만후 원용택 이철용 임병규

우리나라의 부화업은 최근 큰 전환점에 서 있는 감이 있다. 작년 하반기 이래의 불황의 계속은 많은 양계가들이 더이상 양계업을 지탱하기에 너무나 힘에 겨운 것이었다. 닭 수수(首數) 또한 많은 감소를 보였다. 초생추출하도 현저히 감소했다. 대한양계협회 지도조사부에서 집계한 최근 6개월간(74.1~6月) 초생추출하상황을 보더라도 작년 동기간에 비해 무려 53%가 감소한 16,300,017 수가 출하된 것만 보아도 작년이래 우리 양계업체가 겪고 있는 불황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다. 1973년 12말현재 대한양계협회 지도조사부가 조사한 부화장수는 총 285개 부화장에서 1회 1,700만수를 입란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업계의 어려운 사정으로 군소 부화장들은 도저히 이에 견디나가기 어려워 스스로 폐업하는 부화장이 속출, 현재 80여개의 부화장만이 가동하고 있고 그나마의 입란수수도 작년도의 절반도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게 적은 숫자를 입란 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생추 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판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화업자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닌듯 하다. 이러한 불경기속에서 최근의 부화업체의 규모는 격심하게

변화해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부화장, 중규모부화장, 대규모부화장은 각기 그나름대로의, 또 서울과 지방간에 그나름대로의 해결점을 모색운영해 왔는데 작년도 불황을 겪은후 금년 봄 부터는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다. 우선 계속된 생산원가 이하의 병아리가격 판매로 인해 부화장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올 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병아리가격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 기업의 규모라든가, 종계의 종류등에 따라 반드시 생산원가가 동일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현재 부화장측에서 보는 최소한의 생산원가는 산란계 초생추의 경우 수(首)당 150원, 부로일러 초생추의 경우 수당 80~90원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작년 하반기이래 부로일러 초생추를 40~50원에 판매, 금년봄에는 50~60원, 5월에는 80~90원에 판매되었다가 다시 50~60원으로 하회, 조그만 불황이 따라도 생산원가를 따르지 못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란계 초생추의 경우 역시 작년 하반기이래 초생추가격이 계속 좋지 못함에 따라 판매가 거의 중단되다 싶이 됐고 부화수수는 급격한 감소를 보인데다 금년 1월 5일부터 2월 10

일까지 약 40일간의 입란중지로 초생추출하가 중단되었는데도, 입란중지 이후 성수기인 3, 4, 5월이 되면서 초생추 판매가격은 120원~130원에 판매 생산원가를 결코 상회하지 못하는 가격구조 상태속에서 부화업이 지탱해 왔고 또 현재도 그러한 상태속에서 초생추를 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우리 양계가는 이와같은 가격구조하에서 부화업이 계속된다면, 다시말하면 부화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현 여건하에서 부화장측이 충분한 양(量)의 양질(良質)의 병아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해선 현재의 병아리 가격이 생산비 이상에 판매되어야만 양계가가 안심하고, 닭을 사육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 본다. 또 이러한 불경기하에서의 질병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상태속에서 만연되어 가고 있다. 경기가 좋지 못한 상태속에서의 질 좋은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작년도의 뉴캐슬의 만연은 실제적으로 부화업이 당한 극심한 피해는 아닐지라도 그 영향은 곧 부화업계에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계업 전체가 겪은 파급효과가 실제적으로 부화업에 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병아리 가격은 인하하게 되고 이러한 인하된 가격하에서 병아리의 덤핑경향은 부화장 스스로의 불실경영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현재도 이와같은 질병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부화장에 위협이 한층 가까워 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또 금년 봄부터 마택백신을 접종한 닭에서 마택병이 발생했다고 하여 양계가에 질병에 대한 불안을 가중(加重)시키고 있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택백신을 접종한 닭은 거의 안심할 해도 좋았는데 금년 봄부터 정상적으로 접종한 닭에서 병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질병은 점점 만연하는 상태에 있고 또 폭발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양계업의 일반적인 경향이겠지만 부화장측으로 볼때

중전보다도 더욱 신경을 쓰지 않으면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아직 뚜렷한 경향은 아니지만 최근의 부화장 경영에 있어 서서히 세대교체(世代交替)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화장측의 입장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의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경영자가 젊은세대로 교체되고 노년층의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종래 경험위주의 관리원을 채용하는 방향에서 점차 대학을 졸업한 젊은 기술자를 대폭 채용함으로써 부화장 경영에서 하나의 두드러진 변화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부화업계의 여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 부화업의 제반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앞으로의 방향을 제기해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 될 것 같아 본란을 꾸미게 되었다.

## 부화장간의 규모 격차 점점 심화

부화장뿐만 아니라 모든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대형화를 위해 노력해 가고있고 또 이와 상대적으로 일부기업은 점점 소형화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겠다. 우리나라 부화장이 급속히 대형화된 것은 1967년과 68년 사이에 이상 호경기로 인해 대형화되기 시작했고 반면에 소규모 부화장의 난립현상이 동시에 생기게 되었으며 이때에 초생추 수요가인 채란업자는 우수한 초생추 구입에 애로를 겪기도 했다. 이러한 양계경기의 호전으로 부화장의 대형화가 점차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지리라 믿어지지만 최근의 우리 부화업계의 규모면에서의 격차는 실로 너무나 벌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 실제적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부화장수는 285개가 있지만 소

위 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부화장은 수개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이들의 성장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형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반면 그와 반비례해서 소규모 부화장은 점점더 소규모화 해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금년도 종계분양 현황을 봐도 나타나듯이 소규모 지방부화장이 현격하게 규모가 축소된 감이 있다. 물론 지방의 모든 부화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화장은 대부분이 종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확보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또한 작년도의 불황이래 지방의 양계인들이 점차 서울의 대규모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부화장은 점점 가까이 있는 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현상이 단적으로 규모축소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의 실예를 보더라도 서울의 대규모 부화장은 지방부화장과 같은 품종이라도 초생추 가격을 5~10원을 더 받

아가며 무난히 판매해 나가고 있는데 비해 지방부화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병아리를 판매해 가면서도 판매는 부진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화장의 신용문제인데 구입한 병아리의 건강상태등이 이를 좌우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대형 부화장은 그나름대로 병아리 가격을 더받기 위해 착실한 계획아래 노력을 했고 작년 하반기 이래의 불황속에서도 어려운 재 투자를 계속 시설면에 많은 대치등 보다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점점 부화장의 대소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최근 또 한가지 큰 변화는 대부분이 지방 부화장이 산란계 부화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란계 병아리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육용계 병아리 부화로 전환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는 시장성의 변화와 산란계를 육성하려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시장의 변화는, 계육의 소비가 지방에서도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1972년도 초생추 생산을보면 18년전에 비해 산란계 수수는 약 2.85배 증가를 보인 반면 육용계 생산수수는 65.94배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물론 이러한 육용계 수수의 증가는 도시민이 계육소비의 증가에 편승한 사양확대에 기인한 점이 많겠으나 이제는 점차 지방에서도 계육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지방부화장 점차 육용계 부화로 전환

또 한가지는 산란계 초생추를 기피하는 경향은 산란계를 사육하려면 품종관리, 위생관리등에서 고도(高度)의 기술을 요구하게 되며 산란계

병아리를 판매하기 위해선 엄청난 판매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산란계의 시장성은 육계에 비해 그 시장성이 넓고 또 육추회수가 연(年) 2회이상 힘들므로 이러한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려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데 이러한 판매에 드는 비용을 지방의 소자본을 가지고 있는 부화장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에 와서 판매비가 적고 판매가 비교적 쉬운 육용계 부화장으로 변질되고 산란계는 서서히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적으로 지방의 계육수요가 서울등에 치중되었으나 지방에서도 닭고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도 되겠으나 더 큰 요인은 육용계 초생추의 판매가 용이한 것이 더 큰 원인이 될 것 같다. 지방 부화장은 최근에 육용계 종계의 확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을것 같다.

또 G.P.S를 확보하고 있는 부화장은( 많지만 ) P.S를 판매하고 판매치 못할때는 자기들이 사용한 것도 많기 때문에 종계의 확보량은 늘어났으며, 이렇게 늘어난 종계로 cc (실용계)를 무한정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량에 따라 생산하고 종란을 수요량에 따라 임의 선택 임란할 수 있어 G.P.S를 확보한 부화장이 확보하지 못한 부화장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도 부화장의 대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소규모 부화장은 그 나름대로의 특색 최대한으로 살려야.....

이런 지역적인 문제와 기업의 능력, 경영, 자본력등에 따라 부화업의 규모에 큰 변화를 이룩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규모는 더욱 대규모화 소규모 부화장은 더 소규모화하고 있는데 소규모 부화장이 이 어려운 조건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선 좀더 소규모 부화장일 수록 인력(人力)을 집중적으로 투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자는 좀더 세심하게 하나부터 열가지를 체크(Check)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 나간다면 오히려 대형 부화장 보다 유리하게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형부화장이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서 착실히 경영해 나간다면 질이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는데 오히려 대형부화장 보다도 유리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의 지방부화장의 소형화되는 이유를 모 부화장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근 지방부화장의 소형화는 지방 양계인이 지방의 부화장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부화장 사람은 지방 부화장이기 때문에 나쁠 것이라는 일종의 편견된 불신이라고 하지만 양계인은 양계인 나름대로 그 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병아리를 싼 값에 살

려고 하고 지방병아리를 기피하게 됩니다. 지방부화장 나름대로의 여건을 개선해서라도 잃어버린, 신용을 되찾고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부화장수는 결코 증가되리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부화장수는 줄어들면서 서서히 부화장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좀더 좋아질때 현재 부화를 하지않고 있는 부화장이 너도 나도 생산을 하여 생산과잉을 초래할 소지가 완전히 제거된 것만은 아니다.

이제껏 경기의 주기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의 호전을 틈타 미등록 부화장까지 생겨 왕병아리등 무절제한 생산을 하여 양계인 스스로 피해를 봐 왔음을 생각할때 앞으로 전적으로 이러한 소규모 부화장이 도태되었다고 할수는 없으며 이러한 생산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화장의 철저한 등록과 위생규정의 강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양질의 초생추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

## 현재의 초생추 가격으로 양질의 병아리생산 어려워

다음은 초생추의 가격 문제이다. 초생추가 가격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 될 것인가? 단적으로 적정선을 이야기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초생추 가격의 적정선은 부화장의 규모, 자본, 경영상태, 종계의 능력, 시설, 인력(人力), 재무구조등에 따라 적정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보통 부화업자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최소의 이윤을 포함한 초생추 적정가격을 산란계 150원, 육용계 80원선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의 90%이상을 부화시켜 그 병아리가 95%이상 판매되었을때의 기준이라 한다. 만약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50~60%가 판매 되었다고 할때 근본적으로 생산원가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150원과 80원의 적정가격도 안심할 수 있는 가격은 될 수 없다는 이

야기가 된다. 작년도의 경우 불황시에는 종란 60~70%를 입란, 그중 다시 60~70%를 판매했을때 생산원가는 말할 수 없이 높게 된 것이다. 그것도 산란계 100~120원, 부로일러 40~50원에 팔았다는 것은 판매했다고 보기에 너무 가혹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산란계 평균 110원, 부로일러 70원정도에 팔았다면 부화장의 경영은 말할 수 없을 것은 물론 그런 상태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양질(良質)의 병아리일 수 있느냐가 문제시 된다. 이런 상태에서 양계가는 초생추의 품질에 얼마만큼의 기대를 걸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저 가격하에서 부화장의 적정이윤이 축적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시된다. 적정이윤을 축적하지 못했을때 기업은 재 투자할 능력을 잃게되면 그 부화장의 병아리가 양질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자유경쟁체제  
에서 적정가격  
형성돼야……**

물론 어떤 양계가는 말하길 그러면 병아리 가격을 140원, 150원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경쟁 체제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될 것만도 아니다. 물론 부화장 스스로 덤핑을 하여 가격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 양계가 자신이 높은 값을 주고 사려고 하지 않는다. 직접 마진(Margin)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병아리를 높은 육성율과 산란 Peak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높은 유전력을 갖고 있더라도 병아리의 후천적능력은 그대로 보존하기 힘들 것 같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사료질이 나쁜상태에서 완벽한 능력을 바라기는 극히 어려운 상태라 보겠다. 그러면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믿을 수 있는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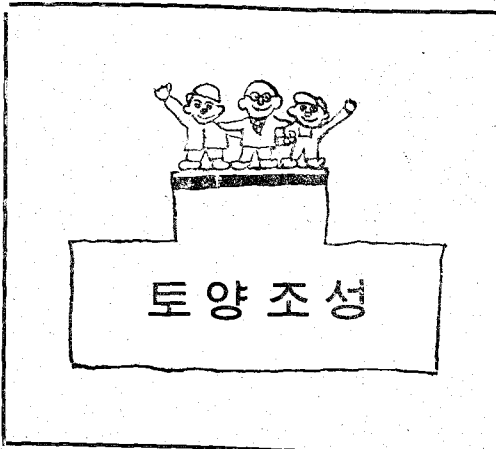
같은 생산비이하의 판매가격은 어떻게 시정해야만 할 것인가? 대한양계협회 부화분과 위원회(위원장:강금노)에서는 지난 7월10일 부화분과 위원회를 소집, 서울에있는 대규모 부화장이라도 우선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초생추의 가격을 시정하고 좀더 질이 좋은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초생추 적정가격을 받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8월부터는 산란계 초생추를 수당 140원, 9월부터는 150원씩 받기로 결정하고 모든 부화업자에게 통고하여 이를 강력히 밀고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이러한 협정가격이 잘 지켜질지는 전례로 보더라도 쉬운일이 아닐것 같다.

또 모든 부화장이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볼때 부화장과 종계장의 시설이 좋고 또 여기서 종란을 엄선해서 부화한 건 강하고 질 좋은 병아리와 시설이 엉망인 부화장에서

품질이 좋지않는 종란을 부화한 병아리가 동일한 협정가격으로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면 불합리한 점도 없지는 않다.

병아리가 저질이라면 적정가격을 받아야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적정가격에 논의가 지켜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어차피 병아리 가격은 자유시장에 맡겨져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병아리가격이 적정가격 이하에서 부화업이 지탱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화업의 규모는 축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때부터 병아리가격은 자유경쟁체제에서 서서히 그 적정가격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부화장이 적정가격으로 초생추를 팔게 된다면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고 여유있게 재 투자를



해서 완벽한 병아리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작년과 같이 부화업자 자신이 무질서한 초생추를 과잉 생산하여 산물가격을 하락시키고, 초생추를 무모하게 덤핑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은 곧 자살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상태에서 몇몇 국내 우수 부화장은 그들의 출혈을 해 가면서도 좋은 병아리를 생산공급하고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초생추가 적정가격에 판매되도록 전 양계인이 노력해야겠다.

## 전문지식 가진 관리자 대폭 채용해서 경영개선

최근의 부화업계는 가족자본에 의해 가족경영을 해 왔으나 현 시점에 그 경영구조가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서울의 우수 부화장과 지방의 큰 부화장은 가족 노동에 의존하는 경영방식을 탈피한지 꽤 오래된 곳도 있다. 자본과 경영도 상당히 분리되어 가고 있다. 자본과 경영의 분리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외국에서도 부화업은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 가족노동에 의해 경영하는 곳이 많다. 부화업은 외국에서도 아직까지 적은 기업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몇개는 경영과 자본이 완전 분리된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 가족경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다. 가족경영이 꼭 불리한 것만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노동을 이용할 때 노동 배분을 적절히 할 수 있고 노동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경영개선은 가족경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발전에 따르는 자본액을 증대시키고 주식회사라면 주식의 분산, 등도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실정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면 경영은 아직까지 가족경영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적어도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대폭채용하여 부화장 관리를 해나가는 것

이 과거의 경험위주로 하던 경영체제보다 부화장의 경영개선을 해나가는데 채용해야 할, 인력관리(人力管理)가 아닐까 생각된다.

## 부화장과 종계장은 반드시 동일기업내에 존재해야 된다는 관념 시정돼야……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통상 부화장과 종계장은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종계장과 부화장이 거의가 동일 경영자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부화장과 종계장이 같은 경영자에 의해 관리될 때 주어지는 잇점(利點)도 많다.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 하에서는 종계장을 가지고 있는 부화장은 그 품질에 있어 수요자인 양계가에게 품질과 판매량(수요량)에 대한 책임을 질수가 있기 때문이다. 1주일에 10,000수의 실용추를 생산공급하기로한 부화업자라면 자체내에서 종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품질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볼 때는 부화장과 종계장은 한사람의 경영자에 의해 경영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는 이러한 동일경영의 유리성은 단지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동일기업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관념은 앞서도 말했듯이 종계를 가지지 않은 부화장에서 잡종 또는 품종이 확실치 않은 병아리를 판매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인식자체도 매우 현명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부화장과 종계장이 반드시 동일기업내에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부화장이 종계장을 소유하게 된다면 종계에 대한 엄청난 투자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종계에 대한 투자, 부화에 대한 투자, 부화기계, 농장시설에 대한 투자 등 엄청난 자본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영세한 자본하에서 종계와 부화양쪽에 투자한

다고 할때 무리가 따르게 되며 이렇게 무리해서 투자할때 종계장과 부화장은 시설이 불합리한 상태에서 종란을 생산해서 부화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게 된다. 따라서 부화장과 종계장이 달리 경영되어 분리돼 있다면 부화장이 시설을 보강할 수 있고 부화장은 품질과 판매면에만 신경을 쓰게되고 종계장을 경영하는 사람은 종란생산에 힘을 써 종계의 능력을 높여 우수한 종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부화장과 종계장을 분리해서 부화를 할때 얼마든지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방역면으로 볼때도 종계장에서 부화장으로 옮겨가는 동안 병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에서 보더라도 부화장과 종계장이 공존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한다. 이제까지 우리 양계업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신관념만 타파한다면 얼마든지 분리경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all in all out도 가능하고 방역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으로 믿어진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종계장과 부화장의 분리 경영도 생각해 볼만하다. 우수한 관리자들이 대거 배출되고 있는 요즘분리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우수한 종계관리를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반드시 부화장과 종계장이 동일기업내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러한 분리경영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시 이러한 분리 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 점은 부화장과 종계장이 하나의 농장안(farm site)에 존재한다고 할때 종계가 얻은 질병이 새로이 부화되는 초생추에 옮겨갈 수 있고 또 초생추가 계속 부화 발생되는 과정에서 세균이 종계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연히 거리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과 같은 부화업체의 여건하에서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나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질병의 악순환을 차단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거의가 밀집된 상태에서 육성, 산란, 노계처분등 한곳에서 닭을 관

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all in all out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all in all out 체제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방역면에서 마택과 같은 백신을 접종하면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질병까지도 정상적으로 접종했는데도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백신을 접종한 뒤라도 1~2주일후 효과가 나타날때 까지 격리사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그전에 바이러스가 침입했다고 하면 마택병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종계장이 동일 농장안에서 종계의 초생추, 육성중인 중추, 산란중인 것을 사육한다면 질병은 다음대(代)에도 당연히 전염될 소지(素地)가 있는 것이다. 동일한 지역내에서 사육한 병아리가 완전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일령이 다른, 품종이 다른 종계를 한 농장에 확보해서 사육할때 문제가 된다. 동일한 품종, 동일한 일령의 병아리는 하나의 농장(Farm site)안에서 길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화장이 가지고 있는 종계장은 이러한 체제를 갖춘 것이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종계장은 다른지역에 여러개의 농장을 가지고 품종, 일령에 따라 사육해야만 될 것으로 본다. 하나의 종계장을 가지고 all in all out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좋은 조건하에 생산된 종란이라 하더라도 완전소독한 다음에 부화장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물론 G.P.S농장과 P.S농장도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G.P.S중에도 육용계와 산란계를 분리시키는 일 등은 비록 현시점에서 많은 자본이 투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부화업의 발전을 위해서 실천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 부화장 내부시설 분리 운영으로 오염막아야

이제까지 종계장과 부화장은 엄밀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위에서 지적했다. 그러면 이러한 종계장과 부화장의 분리만으로 바람직



한 것인가? 그러나 부화장 내에서도 분리가 이루어 지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산란계와 육용계는 따로 부화해야 한다. 종계로 받은 종란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세균의 오염가능성은 언제 어디서고 있을 수 있다. G.P.S를 확보한 농장이라면 G.P.S와 산란계, 육용계를 따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필요한 일들이다. 같은 부화실내에서도 부화기와 발생기가 한 부화기내에 붙어 있을때(마스터피스, 큐크리등) 세균의 오염가능성은 너무나 많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부화기를 쓰지 않는 것은 이미 오래라고 한다. 그러면 왜 분리되어야만 할까? 사실 발육기에 있는 병아리는 굉장히 많은 숨을 쉬게된다. 발육기에서 18~19일을 발육하여 발생실에서 병아리가 나올때 먼지, 잡균등 많은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는데 동일 부화기내에 발생기와 발육기가 같이 있다고 할때 발생기의 세균은 발육기에 들어갈 위험성이 충분이 있다. 바람직한 것은 부화장은 발육기와 발생기가 구분된 부화기를 사육할것, 발육기에 들어가기전 종란을 집란할 수 있는 집란실을 반드시 갖출것 사무실의 분리는 물론, 발육실, 발생실, 감별실, 배부실, 검란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적어도 발생실과 발육실은 꼭 분리 구분 해야만 되겠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부화장은 4~5년 부화를 계속하게 되면 그 부화장은 점점 세균의 오염도가 계속 높아져 아무리 좋은 종란을 부화한다고 해도 부화율이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 외국에서 시험한 예를 보아도 발생실의 오염도는 발육실의 20~30배가 되어 이런 환경속에서 계속 부화를 하게될때 병아리의 질은 필연적으로 나빠지게 된다고 한다. 최소한 발육실과 발생실을 완전히 분리시키면 이러한 점은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부화장은 종란을 선별하여 저장실에서 저장한 다음 소독실에서 입란을 위한 소독을 한뒤 부화실로 옮겨야 하며 부화 18일이 되면 검란과 종란이

전실에서 발생실로 옮긴뒤 여기서 일부 감별 배부실에서 배부하게 되며 배부가 끝난후 세척실로 옮겨 소독하는 것은 물론 발생실의 오물을 오물처리장으로 옮겨 소각하도록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볼때 힘이들므로 최소한의 발생실과 발육실의 분리만이라도 꼭 해놔야 할 것이다.

또 가능한한 배부하기전 적정온도를 유지할수있는 보관실이 있으면 더욱 좋으며 부화실에 출입할때는 소독을하고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갈아신고 들어가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 하겠으며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겠다.

인간이 가진질병을 닭에게 전염시킬수 있는 살모넬라(Salmonella)는 인수공통의 질병이다.

이러한 인수공통의 질병은 닭에게 전파된다. 종업원의 건강 체크도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같다.

다음은 종계와 백신관계를 생각해 보자. 뉴캐슬이나 계두백신은 전염성 질병으로 부터 분리된 것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 것이 우리 실정이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모두 S.P.F난에서 만든 무균 백신임으로 백신을 통한 질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치 못함으로 종계장에는 항상 상당한 고충이 따르게 마련이다.

종계장을 처음 지을때는 격리된 장소에 만들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주위에 양계장이 생겨 질병에 안심할 수 없다. 이때는 생독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S.P.F난으로부터 생산된 백신을 사용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산란종계 1수에서 무려 80수의 실용추가 생산될때 질병의 감염가능성은 많아지게 되므로 종계에는 정확한 백신을 집중하므로써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종계사료의 질 높여야.....

다음에는 저질종계사료가 병아리 생산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종계사료는 사실상 1년반전에 생산된 산란계 사료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저질 종계사료 만으로 키운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으로 부화를 한다면 병아리는 약하게 마련이다. 물론 종계의 산란율도 떨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이러한 사료 문제는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으나 질이 좋지 못한 사료를 먹인 종계가 종란을 많이 생산할 수 없고 설사 그 종란을 부화해도 능력이 좋지 못한 병아리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때 종계사료의 질을 높히는 정책적 배려가 아쉬워 진다.

## 외국계 도입중단에 따른 어려움 견뎌나야

다음엔 우리 전환점에선 부화업체에 국산계 보급문제는 한번 다루어 져야할 문제중의 하나라고 본다. 국산계를 장려하고 외국계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이론(異論)을 제기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나 이해(利害)이 득실을 따져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외국계의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몇몇사람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양계사료의 80%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만약 국산계가 외국계에 비해 10%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때 여기서 나오는 피해는 심각하다는 것이 국산계대체 반대측의 의견이다. 즉 10% 능력저하는 우선 양계가의 수입이 현저히 저하 한다는 것과 두째는 외국에서 막대한 외화를 사용해서 들여온 사료를 사료효율의 저하로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산계를 육종하게 되면 종계값에서는 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사료값으로 볼때 손해가 더 많다는 것이다. 또 반대측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자. 육

종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의 시일이 요구된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육종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전체의 80%의 병아리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도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산계의 능력이 좋지못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국가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다할 성과가 없는 듯하다. 외국의 예를 봐도 가금육종회사들이 재벌들에 의해 인수되고 있다. 하바드가 멜크에, 세이버 농장이 카길에, 아바에커가 록펠러 財團에, 필치는 화란의 유리브리드에, 코브는 업존에 H and N(닉칙)은 화이자에 하이라인은 파이오니어에 넘어갔다. 결과적으로 육종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일류 가금육종회사가 운영진이 넘어가고 있는 것은 육종사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보겠다. 세계육종가들의 견해로는 세계가금육종회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5개이내로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넓은 시장을 판장하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익이 남느냐가 문제시 된다. 이제는 우수한 종계를 수입하던 외국 업체들이 G.P.S 수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육종회사의 수입은 적어지고 세계의 우수 육종회사들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를 하고 있는 모 부화장에 있는 책임자는 "우리나라에서 국산계를 육종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에 불과 합니다. 또 시장이 좁아 더욱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국산계에 너무 의존한다면 국산계를 육종하는 부화장, 시험장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국산계를 가져다 수입을 높여야 하는 양계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국산계의 능력이 외국계에 비해 다소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양계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국산계를 사육해서 그

능력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축산시험장의 설동섭박사는 도입계 중단의 잇점을 1. 30~70만분의 외화절약 2. 우리나라 사료조건에 맞는 국산계육종 가능성 3. 도입종계에 매개되는 전염병 예방 4. 병아리판매에 선의의 경쟁, 5. 값싼 병아리 공급가능 6. 파잉생산시 종계의 값이 싸서 생산과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면서 외국계의 도입중단을 찬성하고 있다. 어쨌든 외국계의 도입중단이 양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한국 양계업계에 큰 전환점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71년도 부터 종계를 수급조절하다가 올해부터 일부 육용계의 도입이외에 종계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종계생산을 조절하자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느정도의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즉 그 조절이 너무수량조절에 국한 돼있기 때문에 부화장측으로 볼때는(종계를 가지고있는) G.P.S나, P.S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해서 무리하게 생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G.P.S에서 산란계 P.S를 40수, 육용계 P.S를 25수가 생산 기준이라고 할때 종계를 가지고있는 부화장 측으로선 기준수의 배가되는 종계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종계를 환우시켜 다시 생산한다 해도 그 능력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수량을 들여오지 않아도 증산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외국계의 도입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냐고 말한다. 결국 도입계 중단으로 인해 우리 양계업계는 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것이지만 이러한 과도기적 시행착오를 이겨나가야만 우리 양계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빠른 정보수집으로 사전대책 수립

마지막으로 부화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정보교환이 빨라야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

년도 쓰라린 불황은 우리가 사전에 경제전반에 불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예측하면서도 부화업자나 양계업자는 하나같이 숫자만 늘리고 있었던 감이 있다. 결과는 자명한 일이다. 기력을 잃을 정도로 그 결과가 심각하지 않았던가...! 부화업자는 작년도 불황을 예측 대비했다면 종계의 숫자를 줄여서 피해를 막아야 했다.

이러한 호, 불황(好, 不況)의 주기는 빠른 정보수집을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봄 외국이나 국내의 정보를 비교적 많이 수집, 이에 대처한 부화장은 이미 금년 5, 6월에 병아리 판매가 부진할 것을 예상 입란 조절에 들어가 병아리 판매에 그렇게 곤란을 겪지 않는 부화장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화장이 새로운 정보수집의 부족으로 5, 6월에 병아리 판매에 많은 애를 먹고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과다 생산해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판매해서 부화장측 자체의 손해는 물론 양계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 분석해서 판매시장을 고려해서 생산하고, 판매를 조절해 간다면 병아리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어 부화장의 재무구조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뿐아니라 근본적으로 양계경기를 호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화업도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상당히 민감해야만 이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부화업계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새로운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려는 시기에 처한 것 같다. 현재의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직을 과감히 탈피해서 더 낫은 길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의 양계업은 안정을 기할 것이다. 하루빨리 우리 부화업계가 정상적인 괴도에 서서 한국양계계를 위해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싶다. □